

리아호나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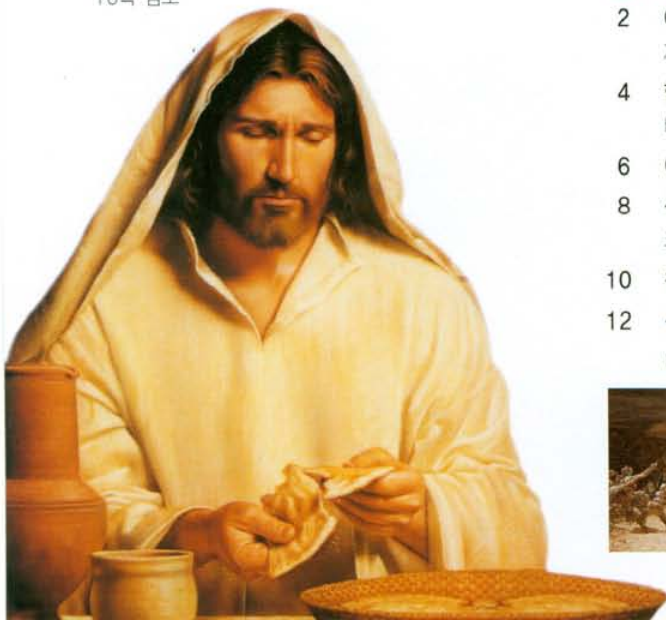


표지
앞: 시몬 듀이, 빛과 진리
뒤: 시몬 듀이, "그에게 들으라"
제공: Altus Fine Art, American Fork, Utah



친구들란 표지
메롤리 캄벨, 주님의 추수 "밭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4쪽 참조.

10쪽 참조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인내, 천국의 미덕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25 방문 교육 메시지: 평생토록 배우기를 사랑함
- 32 말일성도의 소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지함
"내 구주 살아 계시다" 프란시스코 크리스티나 빌라 레이
"왜 당신은 그토록 다르죠?" 후아나 리베로 드 곤잘레스
이름표를 바꿈 알프리 리카르도 가리도
임무를 포기하지 않은 가정 복음 교사 데이비드 헤드
- 38 학생들이 행동하게 함: 공과 참여를 높이는 방법
존 디 클레이보와 앤버 발로우 달
- 44 복음 교육에 대해 말씀하는 말일의 예언자들
- 48 리아호나 2002년 9월호 활용하기

청소년란

- 9 대면하여 크리스티 마수미 킹
- 10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 14 나의 친구이자 동역자: 루안 펠릭스 다 실바의 모범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 16 "단순하고 간결한 진리" 여섯 가지 원리를 적용한 청남 청녀들
- 22 끔찍하고 두려운 날 브ренда 윌리엄스
- 26 엘도라도의 보물 리처드 엠 롬니와 네스터 재비어 파세
- 47 알고 계십니까?

친구들란

- 2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4 함께 나누는 시간 "밭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비키 에프 마주모리
- 6 어린 친구들을 위해 - 선교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 8 샌디의 선교사 그림
크레이그 이 무어
- 10 친구가 친구에게: 아투스 엠 아모림 장로
- 12 신약 성서 이야기: 부유한 젊은 관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2쪽 참조

47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관장단: 고든 비 할랜더,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엘 라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리,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테니스 비 뉴엔스완더

고무: 제이 렌트 쥘리, 더블류 톨프 커, 스티븐 에이 웨스트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롭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엘 그린우드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리자 앤 채스

편집 보조: 수진 브렛

출판 보조: 콜러트 네베커 오운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엘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 맨 캠펠

선임 디자이너: 세리 쿡

디자이너: 토마스 에스 자일드, 랜들 제이 픽스톤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데니스 카버, 엘리 프랫,

로널드 에드 스파크스, 캐리 에이 토드, 콜리우디야 이 와너

디지털 교정 인쇄: 제프 마틴

인쇄 및 배부:

인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구독): 크리스 티 크리스텐슨

통 권: 제438호, 제39권, 제9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2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진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의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부

(☎ 02-2232-1441, 교한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티어,

윌리제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일로카노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케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티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September 2002 No.9.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의의 일하세”

제 침례식 때 우리 회원들이 “의의 일하세”(찬
송가, 177장)를 불러 주었을 때, 저는 그 찬송가
가 제게 큰 의미를 준다는 것을 금방 느꼈습니다.
리아호나(스페인어 판) 2001년 3월호에 실린 리
차드 지 스크트 장로의 메시지, “의의 일하세” 또
한 제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리아호나를 읽을
때 제 기분은 맑아집니다.

카를로스 아나발 구일라트,
베네수엘라 마라카이 스테이크,
마라카이 와드

부름은 우리가 온전케 되도록 도와 준다

교회 회원이 되었을 때, 저는 교회 부름에 관
해 알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청남들을 가
르치라는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그 때 저는 두렵기
는 했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부름은 제게
부거운 책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신앙을 통
해 청남들과 함께 신성한 원리들을 배우기 시작
했습니다. 저는 교회 부름이 가진 축복들을 이해
하게 되었습니다.

리아호나(프랑스어 판) 또한 제 신앙을 강화하
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마을에 머무는 동안 신앙을 지키는 데 리아
호나가 힘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될
때까지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리아호나 덕
분에 신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디에모 칼람바이,
콩고 민주 공화국 루분바시 스테이크,
게카미네스 제2와드

리아호나를 읽는 것은 기쁨을 준다

여섯 살이 되던 해부터 복음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리아호나(스페인어 판)가 언제나 저
희 집에 있었습니다. 아빠가 매달 리아호나를 받
으실 때마다, 저도 그것을 읽을 수 있어 기뻐합니
다. 이제 저는 복음 안에서 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란 것을 압니다.

낸시 갈린도 드 페레즈,
올랜도 플로리다 사우스 스테이크,
윈디 리지(스페인어) 지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갖는 것은 훌륭
한 일입니다. 이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은 더욱 훌륭한 일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물문경을 읽고, 세미나리에 참석함으로써 구세주
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고 어느 날 다시 오실 것
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얀 프르타 폰테스,
브라질 소브랄 지방부,
소브랄 제1지부

리아호나가 학생들을 돕다

저는 리아호나(영어 판)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사랑과 희망과 용기로 가
득합니다. 리아호나를 펼칠 때마다 하나님 아버
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리아호
나는 또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제게 도움을
줍니다. 리아호나는 말일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
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플로렌스 엘 리카르도,
필리핀 부르고스 스테이크,
오로라 와드

인내

천국의 미덕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여러 해 전에 저는 얼마간 보지 못했던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중한 어조로 “요즘 세상은 자네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물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할 수는 없으나, 그 엉뚱한 질문을 통해 저는 그 동안 제가 받은 수많은 축복과 삶 그 자체에 대한 감사와 봉사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똑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혀 예상 밖의 답변을 낳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텍사스에서 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마중 나온 스테이크장을 공항에서 만나 함께 차를 타고 스테이크 센터로 가면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스테이크장님, 요즘 모든 일이 잘 되어 가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을 일주일만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실 이번 주는 파란만장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오늘 아침에는 아내가 천식으로 앓아눕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저희 집 개가 지나가던 차에 치어 죽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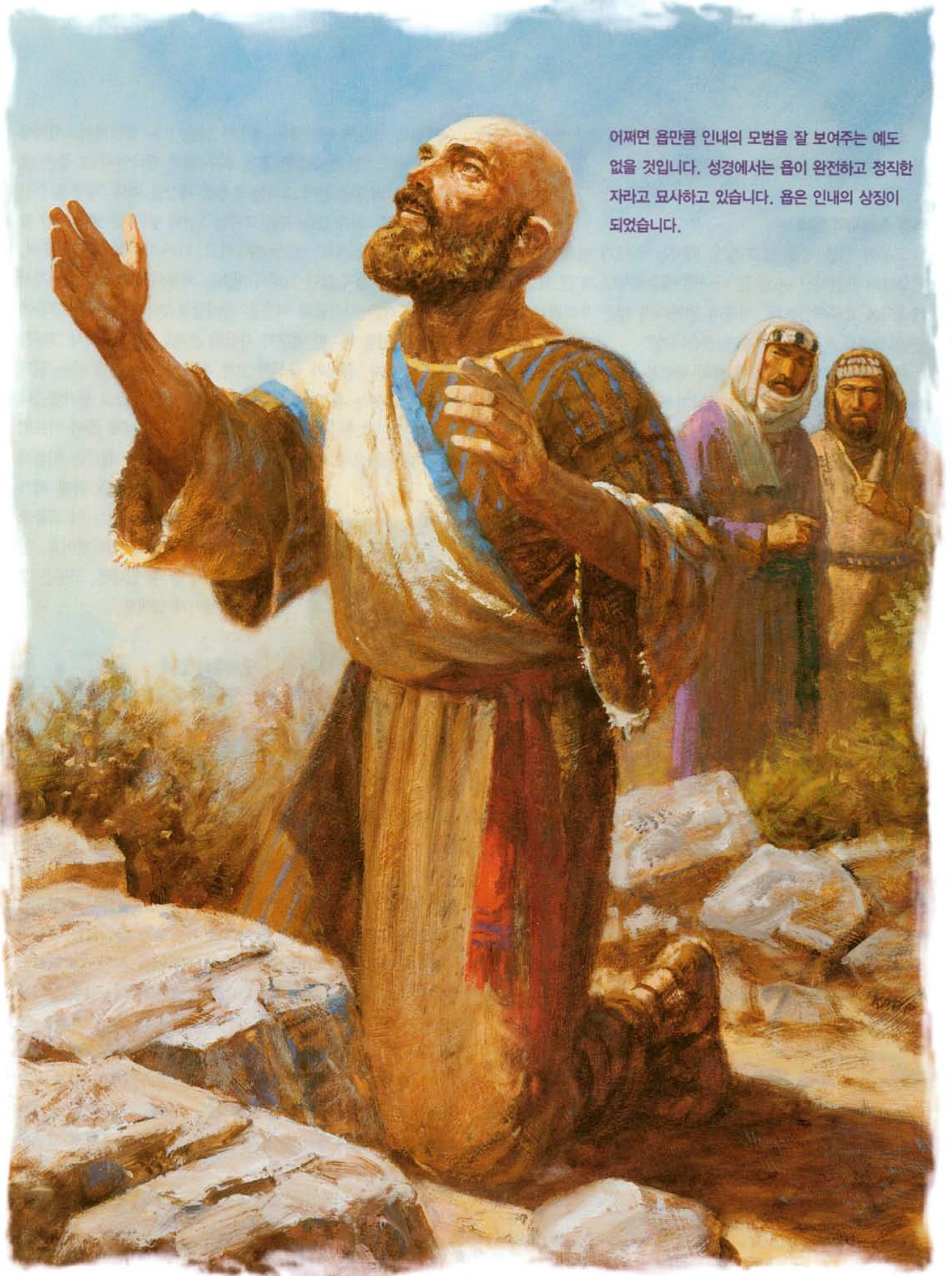
인내의 미덕을 적용함

삶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심각한 것에 이르기까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종종 그런 어려움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책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주 천국의 미덕인 인내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들었던 충고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될 만하므로,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삐를 꼭 쥐어라”, “품위를 지켜라”, “천천히 해라”, “서두르지 마라”, “규칙을 따라라”, “조심해라” 등의 말은 진부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신실한 충고를 나타내며,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를 말해줍니다.

생각 없고 부주의하게 속력을 내는 젊은이들이 가득 탄 차가 바람 불고 위험한 계곡 길을 내려갈 때에는 균형을 잃기 쉬우며, 차가 기울어져 내려가고, 때때로 귀한 청소년들이 차와 함께 아래로 곤두박질이라도 치게 되면, 그들은 영원히 불구가 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기쁨의 순간이 순식간에 평생 동안 후회할 순간으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음만큼 인내의 모범을 잘 보여주는 예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음이 완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은 인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왼쪽사진 촬영: 돈 부시스, 오른쪽: 게리 엘 갠, 음

오, 소중한 젊은이들이여, 후회하지 않을 현명한 결정을 하십시오. 인내의 미덕을 적용하십시오.

역경 속에서의 인내

고통이 심한 병을 앓고 있을 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신 단 한 분 나사렛 예수께서도 그 큰 고통을 견뎌내도록 요구되었는데, 하물며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어찌 그런 역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사막의 대상과 같이 삶의 행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다가 문득 자신들이 쳐져서 뒤에 남겨졌다고 느껴 곰곰이 생각하고, 의아해 하며, 때로는 의심을 하면서 자신들의 시야에서 그 행렬이 사라졌다고 해서 완전히 낙오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 곧 외롭고, 연로하고, 도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압박감을 받을 때 인내는 유익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요양원을 방문해 보면, 기나긴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요양원에서 일요일 예배 모임에 참석하던 중에 저는 한 어린 소녀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너무 떨리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윽고 연주가 시작되자, 누군가 외쳤습니다. “오, 참 예쁜 아이로구나, 정말 아름다운 연주야.” 팽팽한 현 위로 활이 움직이며 내는 소리와 그 어린 소녀의 우아한 손놀림은 그 즉흥적인 칭찬으로 인해 생기가 넘쳐나는 듯 했습니다. 그 소녀는 비할 데 없이 멋진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뒤, 저는 그 소녀와 재능이 뛰어난 반주자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허약하고, 병들고, 연로하신 분들을 격려하러 왔어요. 연주를 하자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제 자신의 근심 걱정조차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분들을 위로해 드렸다기보다는 그 분들이 도리어 저희를 격려해 주셨어요.”

때때로 상황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살았던 사랑스럽고 소중한 젊은 친구 웬디 베니언이 그 좋은 예입니다. 거의 7년 전에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 갔습니다. 그녀는 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압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항상 명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 주며, 결코 신앙을 잃지 않던 그녀의 미소는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웬디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자신의 문제로 시름에 빠져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웬디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웬디의 엄마 낸시는 친구가 너무 오래 머무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그 친구가 간 뒤에 웬디에게 왜 그렇게 몸이 아프면서도 친구를 오래 머물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웬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제가 한 일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친구를 도와 줄 수 있다면, 고통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구세주께서는 무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망의 타는 듯한 고통을 없애시고자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구세주의 인내

웬디의 태도는 세상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낙담을 꾸준히 감내하셨으나, 센들을 신고 조용히 걸으시며, 날 때부터 눈이 먼 자의 걸을 지나가시다 그의 시력을 회복해 주신 주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은 비탄에

잠긴 나인의 과부에게 다가가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발걸음을 떼놓을 때마다 따라오는 끊임없는 조롱과 조소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잔혹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파른 갈보리 언덕길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르셨습니다. 그것은 그분 에겐 거룩한 운명을 결정지을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매우 실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개개인을 방문하셔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분은 활력을 주시며 선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분은 무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망의 타는 듯한 고통을 없애시며, 영생이 우리의 은사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슬픔을 아시는 이분은 십자가에서 내려



그분의 부활은 무덤에 찾아 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두 천사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저 빌린 무덤에 안치되었다가 셋째 날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무덤에 찾아 온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눈 같이 흰 옷을 입고 곁에 섰던 두 천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²

바울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³ 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인내의 모범

어쩌면 욥만큼 인내의 모범을 잘 보여 주는 예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⁴ 욥은 엄청난 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주님께 욥을 시험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

다. 욥은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는 이같이 응답하여 그의 신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⁵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며, 용기이며, 신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은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욥은 건강도 잃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신뢰를 존중했습니다. 욥은 인내의 위대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인내의 미덕을 생생하게 보여 준 또 다른 사람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가 그에게 나타나신 거룩한 숲에서의 신성한 경험 후에, 그는 기다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요셉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고통을 겪은 뒤, 드디어 모로나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후에 더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다음 권고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⁶

구세주의 권유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는 오늘날, 우리는 위험한 길을 건너는 것과 관련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초기의 시대로 돌아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멈춰라, 보라, 들으라”는 것이 당시의 표어였습니다. 이것들을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파멸에 이르는 무모한 길에서 벗어납시다. 하늘의 도움을 위해 위를 우러러 봅시다. 그분의 권유에 귀를 기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⁷

그분은 아래의 아름다운 시구에 서도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실재! 인생은 진지한 것!
무덤이 그 목표는 아니다.
너는 본래 흠이라, 흠으로 돌아
가리라.
이것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은 아
니었다.⁸

만행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삶은 슬픔과 낙담으로 고통을 겪었으나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을 보였던 흠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외웠던 구절이 새롭게 메아리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해 줍니다!⁹

물론경도 그렇게 말하고, 교리와 성약도 그렇게 말하고, 값진 진주도 그렇게 말합니다. 경전을 안내자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굶주림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따라 다닙니다. 좌절이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기에 도움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위한 음식과, 헐벗은 자들을 위한 의복과,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매주 교회 창고에서 나오는 수천 톤의 식량이며 의복, 의료기구, 생필품 등이 전세계의 구석구석에 빈 찬장과 궁핍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저는 실 새 없이 바쁜 유능한 치과 의사와 일반 의사들이 정규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베풀도록 이끄는 선한 동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

직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청이를 치료하고, 기형적인 뼈를 교정하고, 불구가 된 몸을 치유하고자 먼 곳까지 여행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자신을 고쳐주길 바라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장한 천사”들로 인해 축복을 받습니다.

독일에서의 인내

질 알려진 노래의 가사처럼 제가 여러 번 방문했던 동독으로 “저와 함께 날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의 아우토반을 여행하면서 저는 35년 전에 바로 그 도



여러 해 전에 동독에선 자유의 불꽃이 깜빡거리며 약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인내심이 요구되었습니다.

로에서 무장 군인과 경찰을 실은 트럭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았던 일을 잠시 회상했습니다. 사방에서 가죽 끈에 묶인 개들이 짖어대고, 정보원들이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유의 불꽃이 깜빡거리다가 꺼져버렸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습니다. 소망은 거의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삶 곧 고귀한 삶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가 말일성도 각자의 삶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장벽을 넘어 동독을 처음 방문했을 그 당시는 우리 회원들이 공포에 떨며 간신히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저는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절망의



먼저 축복사들이 성임되었고, 그 후에 교재가 출판되었습니다. 와드가 생기고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예배당과 스테이크 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곧 이어 기적 중의 기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이 허가되었습니다.

침울함을 보았지만, 우리 회원들의 모습에서는 밝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괴르리츠에서 저희가 함께 만났던 건물은 폭탄으로 파괴되었으나 내부를 보니 초라하고 암울했을 그곳을 밝고 깨끗하게 만든 지도자들의 온유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교회는 세계 대전과 뒤이은 냉전을 견뎌냈습니다. 성도들의 노랫소리가 모든 사람의 영혼을 밝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주일 학교에서 애창되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시련에 시달려도, 포기하지 말자
 궁핍이 극심해도, 포기하지 말자
 지금 눈물이 나도
 풍성한 곡식을 거두며
 기쁘게 웃을 날 오리 - 포기하지 말자

삶의 여정에서 포기하지 말자
 운명이 어떻더라도
 지지 않는 모든 이에게

더 환한 날이 오리라.¹⁰

저는 그들의 진지함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의 궁핍함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들은 가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축복사가 없었으므로 마음이 몹시 슬펐습니다. 그들에게는 와드나 스테이크는 없고 그저 지부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엔다우먼트나 인봉과 같은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본부에서 공식적인 방문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원들은 그 나라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고 자신의 이해력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공경했으며, 주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¹¹ 저는 연단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복받친 감정에 목이 메인 채 그 백성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진실하고 충실하면, 다른 나라의 교회 회원들이 누리지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도 누릴 것입니다.”

그 날 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되뇌이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심부름을 하고 있사오며,



**우리는 괴르리츠 마을에서 헌납식을 가졌습니다.
회원들은 그 모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이 교회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저는 제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서 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이 고귀한 백성들의 생전에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문득 시편에 있는 다음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이다.”¹² 천국의 미덕인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조금씩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먼저 축복사들이 성임되었으며, 그 후에 교재가 출판되었습니다. 와드가 생기고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예배당과 스테이크 센터의 건축이 시작되고, 완공되고, 헌납되었습니다. 곧 이어 기적 중의 기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이 허가되었습니다. 설계와, 건축과, 헌납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50 년간의 긴 공백을 뒤로하고, 전임 선교사들의 입국과 내국 젊은이들이 세계의 다른 곳으로 선교사업을 행하러 가는 것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윽고 여리고 성의 성벽처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책임이 따르는 자유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35년 전의 그 귀중한 약속이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주어진 작은 괴르리츠 마을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건물이 승인되고 완공되었습니다. 헌납의 날이 밝아 왔습니다. 문슨 자매와 저는 디이터 우흐투도르프 장로 부부와 함께 괴르리츠 마을에서 헌납식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그곳에서 불러졌던 것과 같은 찬송가들이 불러졌습니다. 회원들은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기념하는 그 모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의인들의 노래는 진실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였으며, 그 기도는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되었습니다.¹³

모임이 끝났을 때 우리는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때, 모든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우프 비터젠, 아우프 비터젠*;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하나님께 함께 하소서.”

천국의 미덕인 인내는 겸손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보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루드야드 키플링의 시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소요와 아우성은 사라지고
수령과 왕은 떠나나
주께서 보이신 희생
겸손하고 애통하는 심정
여전히 남아있네
만군의 주 우리가 함께 하심을
영원히 잊지않게 하소서 □

주
1. 엘마서 40:11.

2. 누가복음 24:5~6.
3. 히브리서 12:1.
4. 욥기 1:1 참조.
5. 욥기 19:25~26.
6. 이사야 55:8~9.
7. 마태복음 11:28.
8. Henry Wadsworth Longfellow, “A Psalm of Life”, 5~8절.
9. “Jesus Loves Me!” *Alexander’s Gospel Songs*, Charles M. Alexander (1908) 편곡, 139쪽.
10. “If the Way Be Full of Trial, Weary Not,” *Deseret Sunday School Songs*(1909), 158장.
11. 잠언 3:5~6 참조.
12. 시편 46:10 참조.
13. 교리와 성약 25:12 참조.
14. “God of Our Fathers, Known of Old”, 영문 찬송가 80장.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이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예가 다음에 나온다.

1. 가족 중 한 명에게 복잡한 퍼즐을 맞추거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경전에서 어려운 장을 읽고 설명하는 일과 같이, 인내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행하도록 부탁한다. 그 과제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쩌서 그것을 완수하는데 인내가 필요한가?

2. 가족에게 구세주께서 인내를 보이셨던 때에 대해 말해 주도록 부탁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이 사람들에게 보다 큰 인내심을 갖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3. 인내심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되었던 때에 대해 말하고, 가족들에게 그 경험담을 인내로써 나누도록 부탁한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인내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모세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주님과 대화했다. 똑같은 일을 시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대면하여

크리스티 마수미 킹

나는 구약을 내 삶과는 실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불과한 동화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수천 년 전의 역사인 까닭에 구약은 현실과 무척 동떨어져 보였다. 그런데, 나를 가르치던 세미나리 교사는 구약을 사랑했으며, 그의 열정과 겸손한 간증이 이들 경전에 대한 보다 큰 경애심을 내 안에 스며들게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에 나는 공부를 하던 중에 우연히 이 구절을 접하게 되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출애굽기 33:11)

나는 이 글을 읽고 처음에는 그 말에 특별한 감동을 받지 못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물론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 중 한 사람에게 몸소 나타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런 후에 나는 기도를 드렸고 그 성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날 밤 내게 나타나지 않으실 테지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그분의 사랑이 나를 에워싸는

것을 느꼈다.

나는 기도하면서 읽은 것을 내 나름대로 고쳐 말했다. "모세는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와 대면하여 말씀하시었다." 나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 말을 되풀이 해 보았다.

나는 문득 깨달게 되었다. 그 깨달음은 너무나 의미심장했지만 참으로 단순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돌연 구약이 그리 멀리 느껴지지 않고, 모세도 나와 마찬가지로 필멸의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 속에서 경전이 살아나게 되었다. 나는 모세가 실제로 살아있었고 숨쉬었으며, 그 또한 어려움을 경험했고, 확신의 부족에 따른 힘겨운 노력을 해야 했음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요, 그분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자 나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신 메시아와 대화했다.

나는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는 당신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인생의 어느 순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피부로 느끼면서,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

크리스티 마수미 킹은 브리검 영 대학교 제19 스테이크, BYU 162 와드의 회원이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를 지지해 주신 충실한 교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지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떠받치다” 또는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생명을 지탱한다는 것은 그것에 영양을 공급하며 계속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나 이웃, 혹은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 등을 지지한다는 것은 지원하고, 힘을 나누고,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의 짐을 서로 들어 주며 개인적인 삶의 무게에 눌린 짐을 나누어줍니다.

지지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모든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지라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범과 이상이 되십니다. 그분은 힘의 본원적인 근원이며 모든 것을 견뎌 내시는 인내를 갖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지해 주기를 바라셨을 시간인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무한한 헌신을 나타내신 때는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유월절의 거룩한 만찬이 준비되는 동안, 예수께서는 깊고도 심오한 감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모든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지라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범과 이상이 되십니다.

앞에 놓여진 일을 알고 계셨지만, 그분조차도 “인자는 모든 자보다 더 낮게 몸을 낮추었나니”(교리와 성약 122:8)라고 말씀하기 전에 앞서 자신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의 깊이를 완전히 예상하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성찬을 취하며 그 같은 생각을 하시던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조용히 일어나 마치 노예나 종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사도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요한복음 13:3~7 참조) 이제 막 세워진 왕국에 속한, 얼마 되지 않는 신자들이 곧 혹심한 시련을 겪을 것을 아신 주님께서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커져만가는 고뇌를 제쳐 두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발을 씻겨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없이 겸손하게 그분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그들을 지지하는 종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지켜본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한복음 13:1)

전에도 그래 왔듯이 그 사랑은 어두운 밤과 고난 속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들의 힘이 되실 것이며, 영혼의 어떠한 고뇌도 그분에게서 그 지지의 역할을 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근동 지역에 찾아온 고요한 밤에 모든 인류 곧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경험했던 모든 격심한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모든 심각한 잘못과 상처가 그의 지친 두 어깨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주님에게 이와같은 말씀을 드렸어야 할 순간에 오히



러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때로는 박해까지 받으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 답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20, 33)

어떻게 해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활력이 넘치고 기쁘기 때문입니까? 그 같은 밤에 말입니까? 그분이 알게 계셨던 고통이 곧바로 닦쳐오는 데도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분께서 늘 가져오셨던 축복이며,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견뎌내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 닦쳐올 사건들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홀로 맞이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참으로 솔직한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마태복음 26:38) 그리고는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의 빛”은 함께한 일행들을 떠나 홀로 어둠의 왕자와 겨루고자 동산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는 여러분과 제가 결코 알지 못할 고뇌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 잔을 지나칠 수 없으며 그 쓴 잔의 찌꺼기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피곤하여 곧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찌 되었습니까? 그분의 피로는 어찌 되었습니까? 어떤 휴식이나 수면이 그토록 혹독한 고난을 참아내도록 그를 지탱케 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결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으며, 전혀 그런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견딜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주저하거나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자비심과 통치자의 면모를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고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 그리고 옆에서 참회하는 도적에게 온화하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손으로 어떠한 염려의 표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런 후에 요한에게 어머니의 장래를 맡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요한복음 19:26~27)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 특히 어머니를 염려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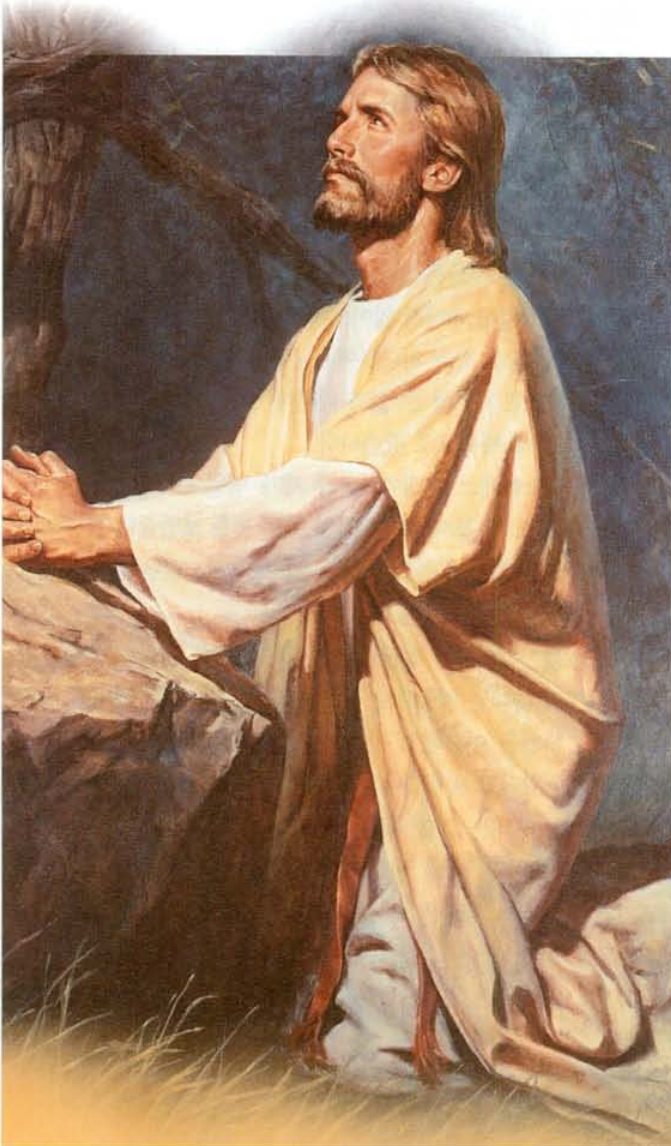
결국 주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 구속의 포도즙 틀을 밟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과 극도의 고통의 충격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가복음 15:34) 이러한 절규는 가시관과 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혼자라는 두려움의 심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두려움과 외로움까지도 견디어 내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셨으며,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순수한 사랑만이 그분과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토록 큰 슬픔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모르지만, 해가 부끄러워 그 얼굴을 숨기고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완전한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땅이 진동한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적어도 한 사람 로마 백부장은 그것에 뭔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그는 영원히 울려 퍼질 말을 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태복음 27:54)

결코 다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인생에는 두려움과 실패가 따릅니다. 때로는 일들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제대로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개인적이거나 공적인 생활 전반에 걸쳐 앞으로 나아갈 힘이 전혀 남



아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기대를 저버리거나, 경제적, 환경적 여건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고난과 비탄으로 가득한 모진 삶에 지극히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올 때에도,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온갖 고난과, 온갖 역경과, 온갖 죄악의 시험을 언제나 견뎌내도록 할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게 하지 않을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모로나이는 세상의 구세주에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었으니, ... 제가 기억하나이다. ... 이제 당신께서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참으로 사랑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이더서 12:33~34)

한 경륜의 시대가 가고 한 문명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지켜 보며 모로나이는 말일에 듣게 될 사람들을 위해 자기 부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을진대 너희는 헛된 것이라.”(모로나에서 7:46) 오직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만이 우리를 끝까지 돕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만하거나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그분의 순수한 사랑만이 그분과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모로나에서 7:45 참조)

날 속죄해 준 그 사랑
 거룩한 사랑 크시며
 빛나고 영화로우니
 내 감히 감당 못하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찬송가 109장)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순수한 사랑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입니다. □

1989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나의 친구이자 동역자

루안 펠릭스 다 실바의 모범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칠십인 정원회

양과 염소에 대한 구세주의 비유와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신 훌륭한 약속들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마태복음 25:31~46 참조), 루안이란 청소년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2001년 2월에 브라질 레시페에서 가진 청소년 캠프에서 루안을 처음 만났습니다. 브라질에서 그 시기는 카니발 기간으로 나흘간 광란의 파티가 이어집니다. 카니발 기간 동안 스테이크들은 흔히 청소년 대회 및 캠프를 열어 말일성도 청소년들에게 기쁨과 건전한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브라질 북부 지역 회장이란 직책을 맡은 저는 브라질 레시페 보아 비아젠크 스테이크의 청소년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루안을 처음 봤을 때, 그는 몹시 야위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막 12살이 되었으며, 캠프 기간 중에 집사로 성임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루안이 왼쪽 다리에 골수암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캠프에 오기 전에 암이 너무 급속히 퍼져 다리를 곧 절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루안은 캠프에서 아론 신권을 받고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축구를 몹시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담당 의사가 수술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동의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 형제들로 둘러싸인 루안은 말 그대로 행복해 하고 즐거워 했습니다. 일요일에 신권 성임을 받은 후, 루안은 복음에 대한 신앙과 구세주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루안에게 다가갔으며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루안의 수술이 있는 후에 저는 오자니 파리아스 감독과 스테이크장인 모자라트 비 소아레스와 함께 그를 만나러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훌륭한 지도자들은 루안의 삶에 축복이 되었습

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곳에서 그를 위안하고, 지지하고, 도와 주었습니다.

저는 루안의 집에서 영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루안은 어머니 그리고 누이들과 함께 8개월 전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루안의 어머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은 말끔하고 깨끗했습니다. 그 검소한 집이 아주 특별한 이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들에게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루안은 침대가 없어 불편한 소파에 누워 자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교회 친구들이 있고, 행복한 가족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우리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루안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루안의 척추 하단부에서 큰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양은 수술로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루안은 또 다시 화학 요법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아레스 스테이크장과 제가 병원으로 루안을 찾아갔을 때, 어린 그가 몹시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안은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가요?”, “죽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와 같은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맞는 것 또한 영원의 일부이며 죽음은 닫히는 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도록 열리는 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안은 이해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안은 이제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루안은 축복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우리는 그를 축복했습니다.

루안 옆 침대에는 열 네살 된 페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드로 또한 우리에게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느냐고 묻자, 페드로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신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축복하는 동안 페드로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 여덟살 된 젊은 여성 또한 우리에게 축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루안과 그의 어머니가 페드로와 다른 많은 암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위안을 주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날 밤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루안과 그의 어머니가 자신들은 비록 힘들더라도, 힘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보살펴 주었다는 것을 알고서 마음이 겸허해졌습니다.

소아레스 스테이크장이 루안에게 퇴원을 하면 무엇을 하고 싶느냐고 물었을 때, 루안은 브라질 레시페 성전에서 대리 침례를 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루안이 퇴원한 후, 소아레스 스테이크장과 파리아스 감독은 루안이 이 소망을 이루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루안은 힘이 닿을 때까지 많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

전에서 하루를 마칠 무렵 루안은 비록 자신이 큰 고통 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것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루안 펠릭스 다 실바는 2001년 8월 20일에 죽었습니다. 제 친구이자 동역자인 루안을 생각할 때마다 구세주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 :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털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 와서 보았느니라. ...

“임금이 ... 이르시되 ...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34~36, 40) □



루안은 봉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큰 고통 속에서 그는 브라질 레시페 성전에 참석했다. 사진 삽입: 코스타 장로, 소아레스 스테이크장, 어머니와 함께 한 루안.



“단순하고 간결한 진리”

여섯 가지

원리를 적용한 청년 청년들

2000년 11월 12일에 열린 특별 노년의 모임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교회의 청소년들과 젊은 독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41쪽 참조) 그분의 메시지는 젊은이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여섯 가지 원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힝클리 대관장의 조언을 적용하며 자신들이 겪은 경험들을 나눌 것을 요청하였다. 아래 글들은 우리가 받은 많은 응답 가운데 일부이다.

길고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시험, 숙제, 일, 친구 등에 관한 생각들을 접어 두고 노년의 모임 방송을 들으러 갔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이 이러한 모든 염려를 내쫓고 내 마음 속에 깊이 와 닿기를 바랍니다.

예언자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또 조용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노년의 모임에 들어갈 때, 저의 생각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으나 나올 때는 삶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행복을 위한 비결인 단순하고 간결한 진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지식을 쌓으십시오. 깨끗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간결한 말씀입

니다. 이러한 원리가 내 삶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것 입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든 진리를 이 복음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언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와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개인에게 적합한 구체적인 인도를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하고, 간결하고, 참됩니다.

리사 웨어, 19세

호주 에잇 마일 플레인 스테이크

로취대일 와드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은 교양

있는 남성이나 여성의 표시입니다. ... 여러분을 그토록 잘 보살펴주시고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행복과 슬픔이 교차하는 이상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부모님이 학비를 대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옷과 먹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사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의 감사하다고 말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당황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갖게 되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



감사하십시오

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이 참으로 훌륭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아야 치카노, 13세
일본 오카자키 스테이크
카리야 와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이 시기에 그분의 훌륭한 교회를 회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밤과 낮을 인도하고 축복하게 하십시오.”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어렸을 때 뭔가를 얻으려면 흔히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전 아주 어렸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며 조금씩 감사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

을 살아 나가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즉 명예롭고 훌륭하게 일을 수행할 때, 여러분은 교회를 영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유능하며 양심적인 일꾼으로 대우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저는 힝클리 대관장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저는 학교 수업과 종교 교육원 수업을 동시에 듣는 것이 때로는 힘듭니다. 한 가지를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가 현명하게 되고, 하는 일들을 성취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물론 종교 교육원도 졸업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노변의 모임에서 메모를 했지만, 리아 호나스메인어 판에서 말씀 전문을 읽고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여전히 제 마음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작은 나라에서나 보다 큰 나라에서나,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권고를 따른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더욱 나은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니 엘리사 제임즈 우타니, 23세
페루 리마 라스 비올레타스 스테이크
유포 와드

깨끗하십시오

“불법적인 약물은 여러분을 파멸시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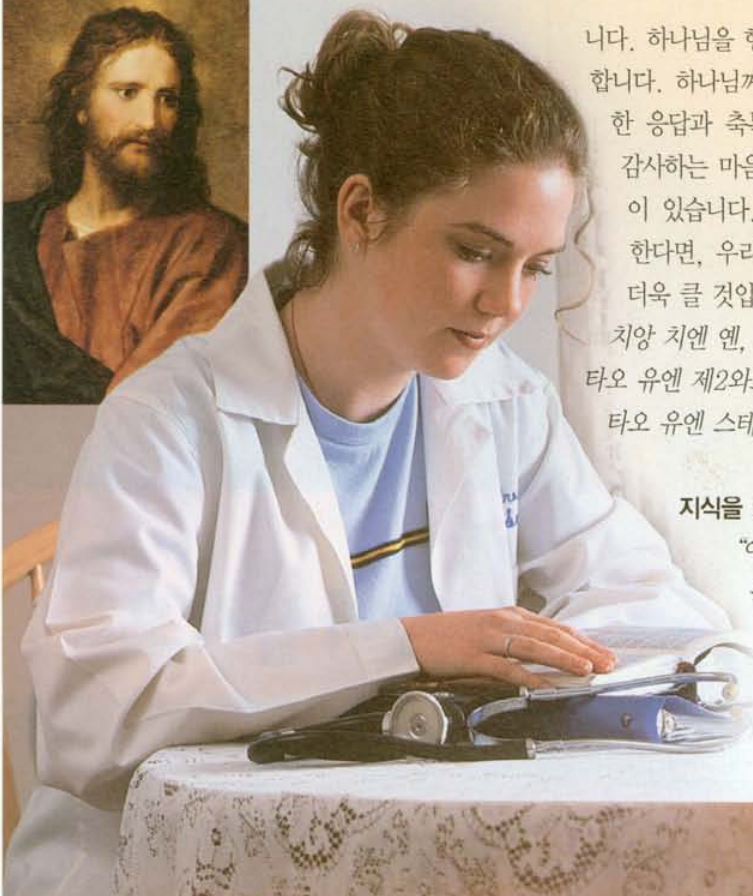
지식을 쌓으십시오

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여 적절한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데도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가 받는 축복들은 분명 더욱 클 것입니다.

치양 치엔 엔, 14세
타오 유엔 제2와드,
타오 유엔 스테이크

지식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은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 주님께서 여러분이 생각과 손을 훈련시키고, 이 세상





깨끗하십시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 훌륭한 청년 청년 여러분에게 제가 권고하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그러한 것로부터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 정신을 마비시키고 습관성이 되게 하는 중독으로부터 물러나 깨끗해야 합니다."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저는 16세인데 위험한 유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러한 것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한 친구가 우리들 몇 명에게 와서 무엇인가 좀 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갖고 그러는지 보러 갔을 때, 우리는 그것이 마리아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 친구가 한 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소리쳤습니다. "제 정신이 니?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안돼. 가자!"

친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들 각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힘을 조용히 간구했습니다. 저는 그 꾸러미를 잡아채어 던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화를 내었지만, 저는 안도와 행복감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 기회에 마리아나가 나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함께 대화하던 중에 힝클리 대관장님이 마약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이 제 마음 속에 그 말씀을 속삭여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다니엘라 브로카, 16세

브라질 상 파울로 파르퀘 브리스톨 스테이크

자던 다 사우드 와드

진실하십시오

"이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은 이 교회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아 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침례의 물에서 스스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성찬을 취할 때마다

진실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 때가 찬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상에 회복해 주신 이 대업과 왕국의 회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신앙을 갖고 걸으십시오." -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

오늘날의 세상은 위험하며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저는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느낍니다. 현재 제가 특별히 중요한 원리는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새 학기를 시작했을 때, 저는 새

로운 친구를 몇 명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복음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여섯 가지 원리에 대한 비디오를 본 것이 기억났습니다. 비디오를 보는 동안 "너는 교회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화평의 영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후에 *리아호나*(일본어 판)를 읽으면서, "네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유명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중대한 결심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말씀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

합니다. 물론 다른 원리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제 자신에게 진실하고 싶습니다.

사쿠라 카지하라, 15세
일본 샌다이 스테이크
이주미 와드

겸손하십시오

"저는 은유하고 겸손한 자들이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배우고자 합니다. 그들은 삶을 인도해 주는 조용하고 작은 음성의 속삭임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보다 주님의 지혜를 따릅니다"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일상 생활에서 제 주변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기 힘들 때 저는 마음 속으로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거나 하나님 아버지께 진지하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한 나쁜 생각들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제가 겸손할 때 그분은 저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성공을 거둘 때면 그 성공이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믿고 약간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겸손함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그 성공이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 주셨기 때문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과 힝클리 대관장님의 가르침을 통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 웨 유, 16세

타오 유엔 스테이크,

타오 유엔 제2와드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지니고 생활하십시오. ... 기적 같은 일은 그분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응답해 주시고 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언제나 들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위안을 받으며 저를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느끼니

다. 최근에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경험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날은 매우 힘든 하루였는데,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자 곧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끝내자마자 언니가 제 방에 들어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의 충만함을 느꼈으며, 이 경험은 기도에 대한 제 간증을 더해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며, 진심으로 기도하고자 노력합니다. □

새는 왓슨, 17세

유타 하이랜드 이스트 스테이크,

하이랜드 제20 와드

기도하십시오



꿈쩍하고 두려운

날

스트레스, 의심, 더 많은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브렌다 윌리엄스

침대에 걸터 앉아, 다음날 있을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두꺼운 생물책을 무릎 위에 펼쳐 놓았다. 세포 호흡에 관한 복잡한 단원의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에 집중하려 어금니를 꼭 깨물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눈물이 났다. 그날 밤 연극 적성 테스트에서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 고등학교 연극 무대에 서고자 하는 첫번째 시도였다. 춤, 연기, 음악 등의 예술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권유로 뮤지컬 테스트에 도전해 보기로 했던 것이다. 난 잘 하지 못했다. 춤과 노래 오디션은 평균 정도였던 것 같다. 하지만 오늘 밤에 마지막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심 성공할 것이라 믿었던 익살스러운 독백이었다. 연극 감독과 오디션 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해야 했다. 나는 여러 날 전부터 대본도 쓰고 심지어 꿈에서도 공연할 수 있을 만큼 세심하게 대본을 외우며 독백을 위해 준비해 왔다. 그런데 학교에 갔을 때 준비했던 것들이 그대로 정확하게 생각이 나질 않았다. 긴장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날로 예정된 어려운 두 가지 시험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 너무나도 잘 알았던 대사였건만 기억하려고 애를 써도 더듬더듬 한 마디씩 튀어나왔고 그것도 머뭇거리며 불안정하게 흘러나왔다.

집에 돌아왔을 때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적셨고, 흐느끼는 소리를 감추려고 애썼다. 지난 몇 주 동안 잘 된 일이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거리를 두고 냉담하게 대하고 있었다. 시간 일정이 험겁고 부담스러웠다. 대학 진학은 계

속 의심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밤 오디션에서 낭패를 겪고 난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잠은 또 어떻게 자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생물책을 덮어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감정이 폭발쳐 얼굴을 베개에 묻고 울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축복이 필요하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다. 나는 엄마를 둘러보낼 생각으로 엄마를 쳐다보았다. 눈물 자국 난, 빨갛게 부어 오른 내 얼굴엔 베개의 슬기 자국이 나 있었을 터였다. 일어나 앉으면서 엄마, 아빠가 문가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나는 지금 무엇보다도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신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코를 훌쩍이며 일어나 엄마, 아빠를 따라 거실 건너편 안방으로 갔다.

그날 밤 이전에도 난 신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었다. 개척자들에 의해 주어진 축복에 대해 들어 왔다. 또한 우리 시대에 화상을 입은 환자들, 혼수 상태의 어린이, 생존할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들에게 관해 들어 왔다. 나는 2년 전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 그 특별한 진실성을 알았으며 축복 내용을 사랑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빠가 내 머리에 두 손을 얹었을 때, 신권에 대한 간증이 강화되었다. 나는 부드럽게 누르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며 축복하는 말씀에서 신성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축복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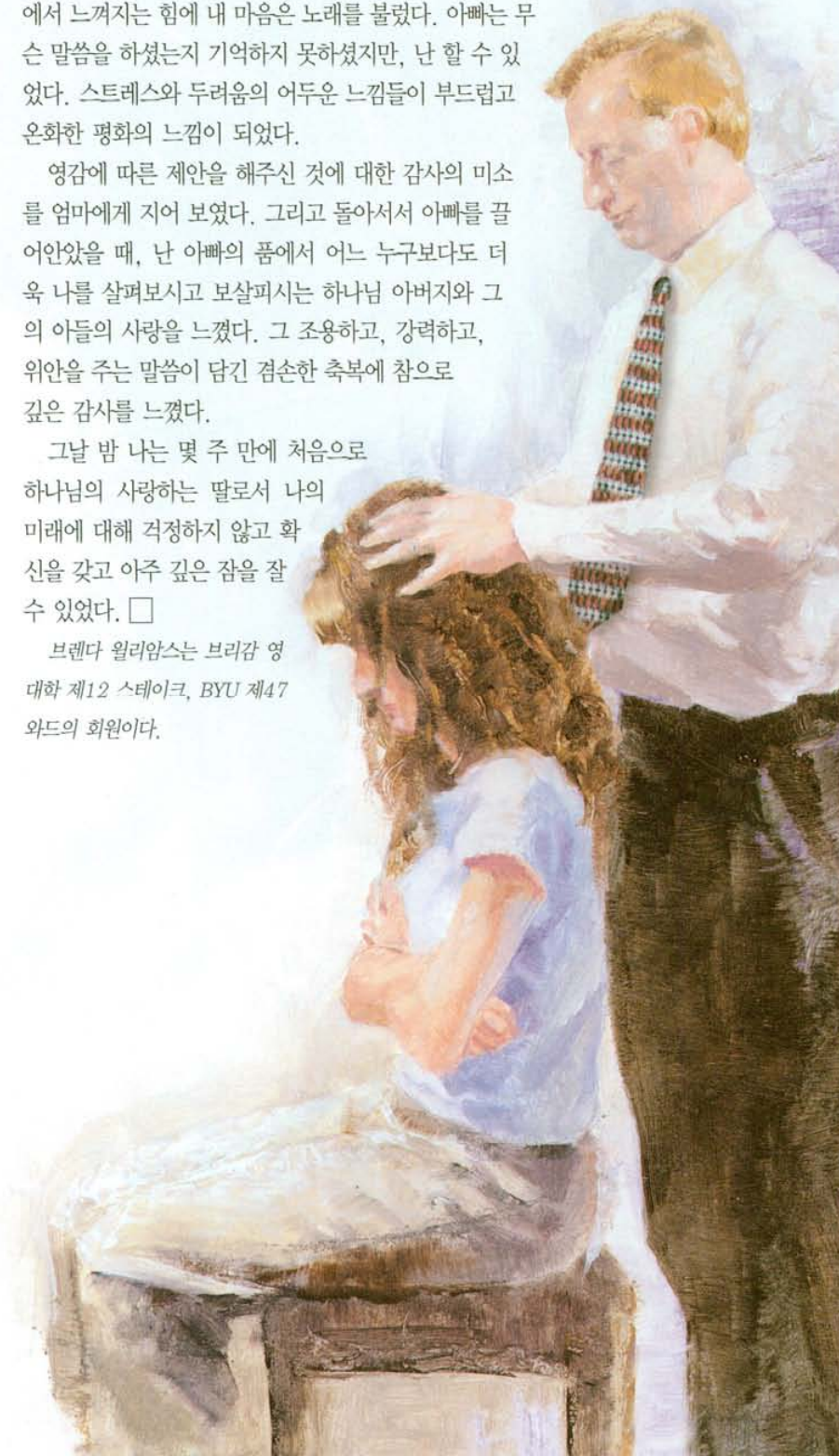


스름은 나의 표면적인 소망을 지나 내가 가장 들을 필요가 있는 것들에 관한 것이었다. 이빠가 축복을 미쳤을 때, 그 축복의 말씀은 이빠의 말씀이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며, 그 간절한 치유의 말씀에서 느껴지는 힘에 내 마음은 노래를 불렀다. 아빠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난 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와 두려움의 어두운 느낌들이 부드럽고 온화한 평화의 느낌이 되었다.

영감에 따른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미소를 엄마에게 지어 보였다. 그리고 돌아서서 아빠를 끌어안았을 때, 난 아빠의 품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나를 살피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사랑을 느꼈다. 그 조용하고, 강력하고, 위안을 주는 말씀이 담긴 겸손한 축복에 참으로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서 나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아주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

브랜다 윌리엄스는 브리검 영 대학 제12 스테이크, BYU 제47 와드의 회원이다.



“모든 것을 그분께 돌리라”

“우리는 모두 저마다 이런 저런 형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 외로움이나 좌절감을 느낄 때에도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흔히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결과로 오게 되지만, 구세주의 모범을 따라 생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도 오게 됩니다.

“울슨 에프 휘트니 장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쳐 주어 인내와 신앙, 강인함과 겸손함의 자질을 키워 줍니다. 우리가 고통 받는 모든 것과 견디어 내는 모든 것은, 특히 참음성 있게 그 모든 것을 견뎌 낼 때, 우리의 인품을 도야하고, 마음을 순화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키워 주고, 더욱 큰 사랑을 지니게 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 합당하게 합니다. ...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슬픔과 고난과 땀 흘려 일함과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Improvement Era, 1966년 3월호, 211쪽에서 인용)

“주님은 궁극적으로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55:22) ‘그 때에 주께서 독생자의 기쁨으로 너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여 주리라’ (앨마서 33:23) -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영과 육신의 치유”,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16쪽) □

평생토록 배우기를 사랑함

여러분이 방문한 사매들과 함께 다음을 읽고 질문과 성구와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해 토론한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누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경험과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한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여러분은 교육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 인간 예지의 발전에는 거룩한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교리와 성약 93:36)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교리와 성약 130:18) ... 교육은 어떠한 면으로든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는 투자입니다.”(“마음속에 거룩한 표상을 세우십시오”, 성도의 빛, 1990년 1월호, 108~109쪽)

교리와 성약 88:118: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이 축적되어 있는 지혜를 연구하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신 분별력을 사용하여 학문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계시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학문을 구해야 합니다. 땀 흘려 대가를 치른 탐구자는 영감으로 보상 받아 왔습니다. 계시에 의해 주어지는 지식은 과학과 예술 분야의 연구자에게는 특별 보너스가 되지만, 하나님과 그의 복음 교리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이 분야의 지식에는 학위나 이성으로서는 불충분합니다.”(“여러 음성”, 성도의 빛, 1990년 7월호, 35~37쪽)

교리와 성약 88:77~79: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이해하면 유익한 ...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일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과 국내의 일과 외국의 일 그리고 전쟁과 여러 국민간의 갈등, 지상에 임할 심판 및 여러 나라와 왕국에 대한 지식도 배우게 되리니.”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1895~1985): “우리는 정신을 맑게 하고, 상

심한 마음을 치유하고, 가성을 세우는 일에 관해 반드시 훈련받아야 합니다. ... 그 가운데 정신과 영의 건강이 키워질 것입니다. ...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 나이가 가라 강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거나 금문교를 놓는 방법만을 배워서 는 아니 되며, 세상에 존재하는 오해와 미움과 불화의 깊은 간격을 넘는 다리를 놓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ited by Edward L. Kimball [1982], 391쪽)

브리감 영 대관장 (1801~1877): “저는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 배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물론 영의 세계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더 훌륭한 재능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육신을 얻게 되면, 저는 천 배나 더 절약된 시간으로 천 배나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배움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194~195쪽)

■ “규칙에 규칙을”(교리와 성약 98:12) 이란 구절에 대한 이해는 평생 배우려는 우리의 노력에 어떻게 지침이 될 수 있는가?

■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이 되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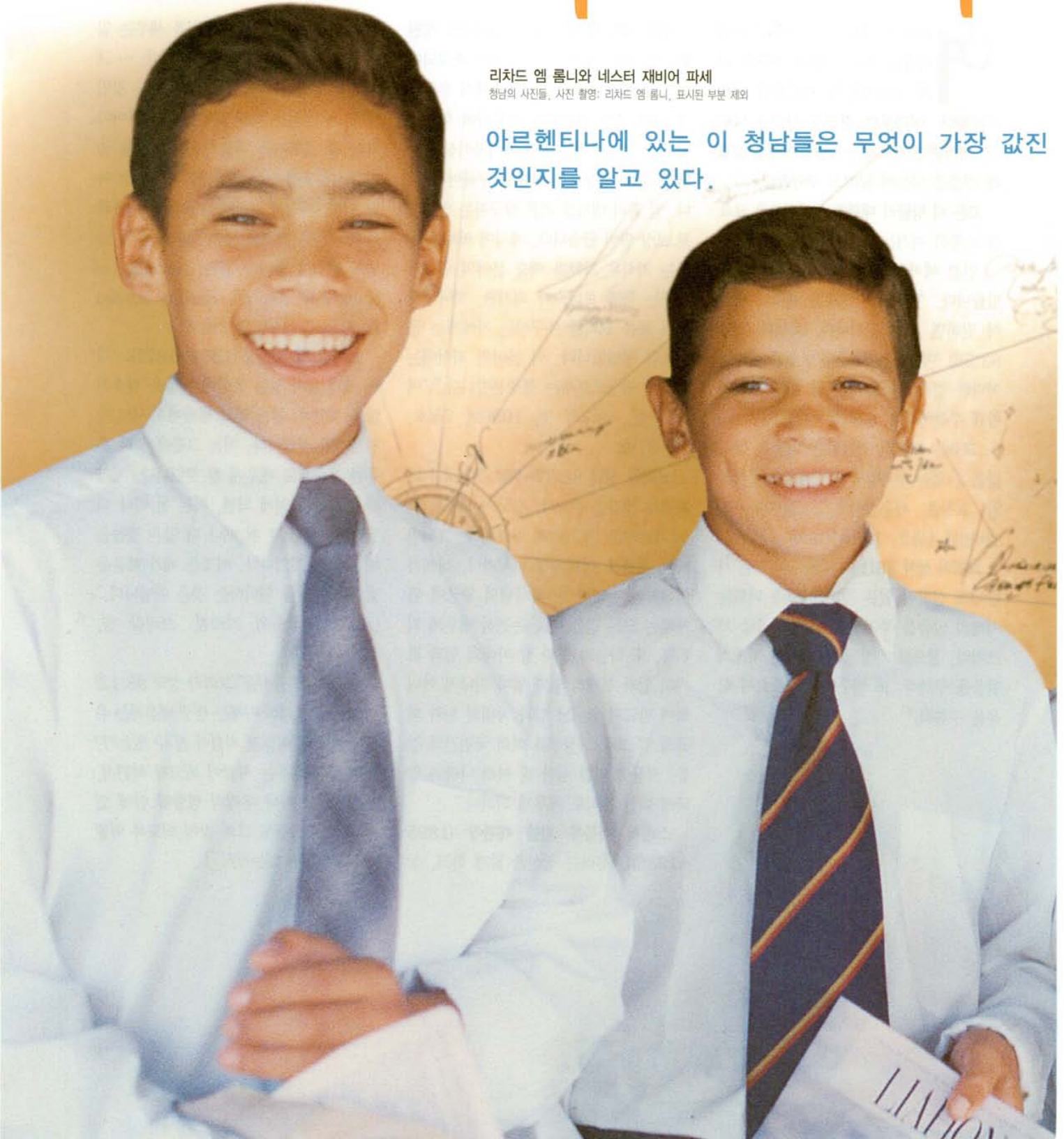


엘도라도의

리차드 엠 롬니와 네스터 재비어 파세

청남의 사진들, 사진 촬영: 리차드 엠 롬니, 표시된 부분 제외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 청남들은 무엇이 가장 값진 것인지를 알고 있다.



보물

“만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뜻을
정하신 부를 구하면 모든 백성 가운데서 가장
부한 자가 되리라. 이는 너희가 영원한 부를
가지게 될 것임이니”(교리와 성약 38:39)

전 설에 따르면 엘도라도는 황금의
도시들이 있던 어마어마한 보물
의 장소였다. 코로나도라는 사
람은 일생 동안 그곳을 찾아다녔으나 결
코 찾지 못했으며 그 후에도 사람들은 계
속 찾아다녔다. 다른 사람들도 부귀를 좇
아 생을 바쳤으며, 보물을 놓고 다투다가

죽기도 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 사는 네 명의 어린 말일성도들을 포함
한 다른 사람들은 또다른 종류의 보물에
대해 알고 있다. 그 보물은 이 지상의 것
이 아니라 영원한 보물이다. 그 보물은 다



참된 교회의 회복에 관해 선교사들이 말하는 것을 마티아스와 엘리야스 바에호스 형제가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들은 물문경을 연구하고 그에 관해 기도하면서, 자신들에게 귀한 보물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름 아닌 회복된 복음이란 보물로, 문자 그대로 그들의 문 앞에 전달된 보물이었다.

1999년 4월의 어느 날 오후, 엘도라도로 알려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교외에서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맨 두 젊은이가 바에호스 가족의 집 문을 두드렸다. 젊은 이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선교사라고 소개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참된 길을 찾으라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한 메시지는 참으로 보물일 것이

다! 가장인 돈 루벤 올란도 바에호스는 이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선교사들과 만나 복음을 토론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12살 난 아들 마티아스와 11살 난 엘리야스가 때때로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 아이들은 참된 교회의 회복에 관한 이러한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사들이 말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점차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도 토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선교사와 첫번째 공식 토론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은 물문경과 교회가 참된지 기도하여 물어 보라고 했습니다.” 하고 엘리야스는 설명한다. “그날 밤 저는 기도를 했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이 하라고 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언제나 응답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기도의 힘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간



증의 시작. 이것들은 참으로 보물이었다.

마티아스도 보물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경전과 교회의 출판물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는 말한다. 물론경에 나오는 한 특별한 성구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의 아들이, 네가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엘마서 37:35)

그 형제들은 아르헨티나 바렐라 스테이크의 엘도라도 워드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1999년 9월 29일에 마티아스와 엘리아스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 침례를 받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하게 될 수 있는지 배워 나갔다. 예를 들면, 침례를 받고 2주 후에 마티아스는 아론 신권을 받고 집사에 성임되었다. “제가 하늘로부터 힘을 받았다는 것을 곧바로 느꼈습니다.” 하고 그는 말한다. 그는 또한 교회 회원으로 확인되었을 때 받은 은사인 성신의 영향력을 느꼈다.

“저는 귀고리를 하라는 유혹을 받아 왔습니다.” 하고 그는 말한다. “그러던 차에 교회와 활동을 위해 어떤 복장을 해야 하는가를

한 보물의 발견은 다른 보물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엘리아스 또한 기도의 힘을 알고 있다.



마티아스는 진리의 간증을 나누었을 때 그것이 더욱 값지게 자란다는 것을 발견했다.

알려 주는 소책자를 받았습니 다. 그것을 읽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귀고리를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귀고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 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느꼈습니다. 성신이 제게 속삭이며 올바른 일을 하도록 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권의 힘. 성신에게서 오는 인도. 참으로 이것들도 또한 보물이었다.

마티아스와 엘리아스는 배운 것에 대해 참으로 깊은 감명을 받아 새로운 이해를 나누고 싶어 했다. 그들은 이웃 친구인 엔리케스 형제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후안 카를로스는 12살이었고, 에스테반은 11살이었다. 후안 카를로스가 특히 관심을 보였으며, 곧 선교사와 토론을 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난 뒤 그는 침례를 받았으며, 얼마 후에 집사에 성임되었다.

마티아스와 후안 카를로스는 계속 신권 안에서 성장했다. 13세가 되던 해에 마티아스는 집사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엘리아스는 12살이 되자 집사로 성임되었다. 일년 후에 마티아스는 14살이 되어, 교사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사 정원회 회장이 되었다. 후안 카를로스 도 14살이 되어 교사로 성임되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마티아스와 엘리아스의 아버지인 돈 루벤 올란도 바예호스가 마침내 침례를 받았다. 바예호스 형제는 도살장에서 일을 했으며,



에스테반은 구세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신권의 힘은 축복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할 때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후안 카를로스(오른쪽)는 경전을 공부하면서 결코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을 찾았다.

작업 일정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들들이 성장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지켜보며 감명을 받았다. 그가 침례를 받았을 때 큰 축하 행사가 열렸으며, 아사도(쇠고기 석쇠 구이)도 곁들여졌다. 그러나 더욱 인상적인 것은 참석한 사람들이 경험한 영적인 느낌들이었다.

마티아스와 엘리야스는 친구 에스테반에게 침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으며 그 느낌이 무척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고 에스테반이 회상한다. 그들은 그에게 토론을 듣고 싶으냐고 물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침례받고 싶어.’” 몇 주 후에 에스테반도 복음을 배운 후 침례를 받았다. 그도 곧 집사에 성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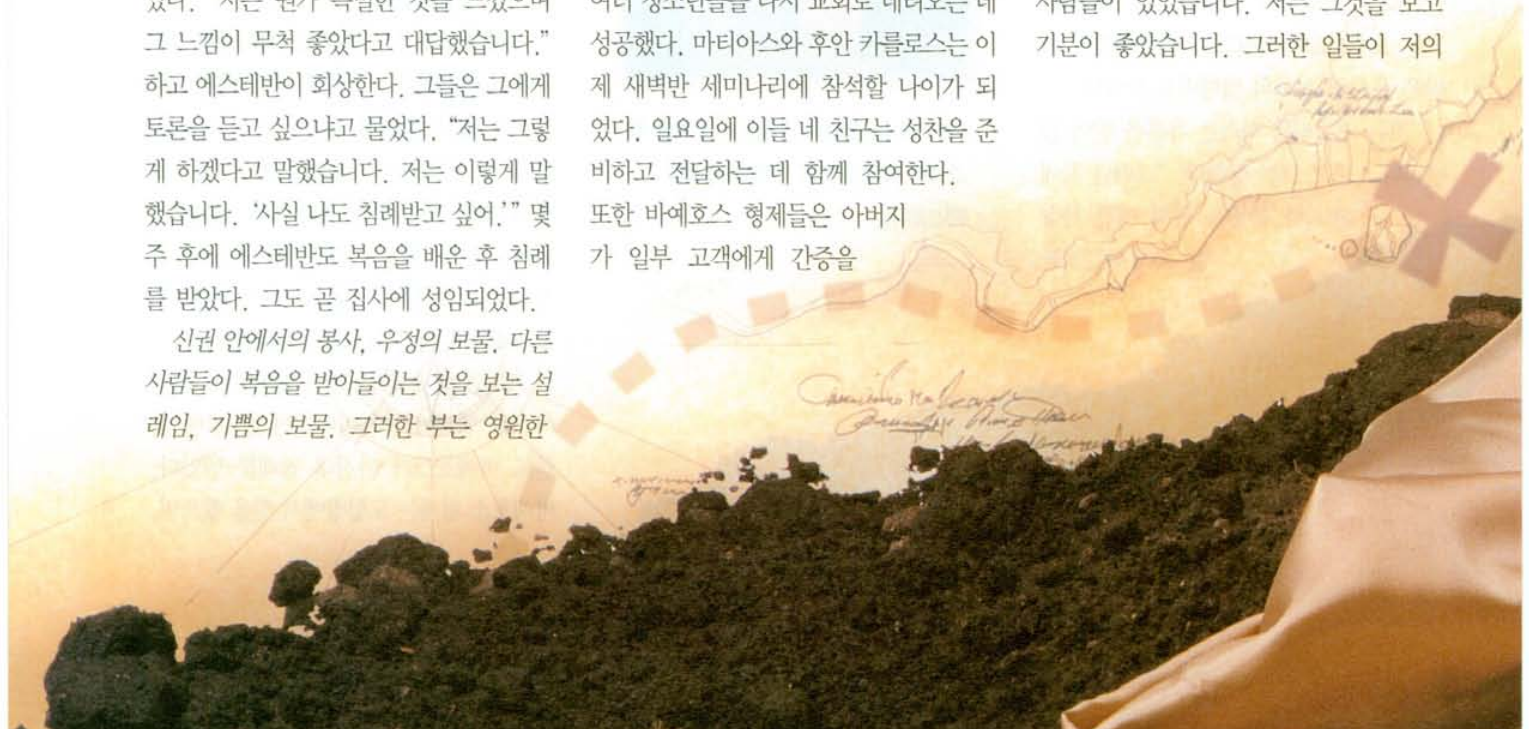
신권 안에서의 봉사, 우정의 보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는 설레임, 기쁨의 보물. 그러한 부는 영원한

부의 보물이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다. 엘도라도 와드의 아론 신권회를 당장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바예호스와 앤리케스 형제가 활동하는 것을 볼 것이다. 엘리야스는 집사 정원회 회장이고, 에스테반이 보좌이다. 마티아스는 교사 정원회 회장이고, 후안 카를로스는 보좌이다. 그들은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정원회 회원들을 방문하며 매주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떨어져 나갈지도 모를 여러 청소년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마티아스와 후안 카를로스는 이제 새벽반 세미나리에 참석할 나이가 되었다. 일요일에 이들 네 친구는 성찬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데 함께 참여한다.

또한 바예호스 형제들은 아버지가 일부 고객에게 간증을

전했으며, 그들 가운데 일부가 현재 토론을 진행 중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해 줄 것이다.

이 소년들의 간증도 다른 사람들과 간증을 나누면서 자라났다. 마티아스는 최근에 있었던 간증을 키운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얼마 전, 어느 토요일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기도를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의



간증을 강화시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요셉 스미스에 관해 읽을 때 간증이 강화됩니다. 저도 그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는 제 나이였습니다!”

엘리아스 또한 기도의 힘을 알고 있다. “저는 기도로 몰몬경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로 교회가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세운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발전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계속해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후안 카를로스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발전에 감사해 하고 있다. “마티아스와 엘리아스가 제 동생과 저에게 교회에 관해 말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카를로스는 말한다. 에스테반도 그 말에 동의한다. “그 친구들이 우리 형제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고귀한 보물을 찾게 도와 주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간증에 간증을 더함. 영원한 안목. 가슴과 영혼의 부. 그렇다. 엘도라도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영적인 보물, 곧 값진 진주이다. □

후한 카를로스 and 에스테반 앤리케스 형제는 마티아스와 엘리아스가 자신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에스테반은 이렇게 말한다. “그 친구들이 우리 형제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고귀한 보물을 찾게 도와 주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지함

십

이사도 정원희의 제프리 알 홀런

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친

구나 이웃, 혹은 길거리에서

만남 낯선 사람 등을 지지한다는 것은 지원하고, 힘을 나누고,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의 짐을 서로 들어 주며 개인적인 삶의 무게에 눌린 짐을 나누어 집니다.” 이러한 책임이 주

님의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모든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지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범과 이상이 되



시기 때문이다.(이번호 11쪽 참조) ♥ 우리는 구세주에게서 그토록 큰 사랑과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분의 모범과 사랑을 따르며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기를 원한다.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며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망이다. 이러한 소망은 또한 회원들이 길 잃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도록 동기

를 부여한다. 다음 이야기는 이러한 소망이, 지지하는 사랑을 준 사람들과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 주는 예들이다.

“내 구주 살아 계시다”

프란시스카 크리스티나 빌라 레이

1990년 겨울, 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선교부 내에 있는 레리다라는 도시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동반자인 맥키 자매가 병이 나서,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아파트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마침내 진전을 보여 가르쳐야 할 몇몇 구도자가 있었기에 우리는 마음이 답답했다. 우리에게는 또한 별로 진전이 없어서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을 간구했다.

어느 날 아침, 구세주에 관해 읽으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느낌을 나누기 시작했다. 갑자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역에 관한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움을 간구하면서, 마음에 평온한 느낌이 들었다. 필요로 하는 그림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우리는 그에 수반될 말들을 찾기 시작했다. 특정 장소를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정

확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절이나 그림을 발견했다. 우리는 특정 그림이 어느 리아호나와 엔사인에 실려 있는지를 기억했다. 우리에게 없는 그림을 얻게 도와 달라고 회원들과 다른 선교사들에게 부탁했다. 우리는 음악을 찾으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 발표를 하면서 맥키 자매와 나는 너무나 강한 느낌을 받아 우리가 맡은 부분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여러 날을 일한 끝에 우리는 계획한 부분을 마칠 수 있었다. 대사와 음악이 조화를 이루도록 수도 없이 반복 연습하여, 발표 때에는 모든 것이 제대로 들어맞게 하려고 했다.

우리가 준비한 작품의 이름이 분명해졌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구세주의 사명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 큰 확신을 갖고 우리는 “구속주가 살아 계심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 구절이 제목이 되었다.

맥키 자매가 회복된 후, 바로 우리는 가르치던 사람들에게 토론의 일환으로 그 발표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렌다 가족과 가장 영적인 경험을 나누었다. 아렌다 가족은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질문을 했지만 침례를 받으려 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마지막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에게 구세주에 관한 우리의 발표를 보여 주기로 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가장 잊지 못할 경험 하나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발표를 하면서 맥키 자매와 나는 너무나 강한 느낌을 받아 우리가 맡은 부분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누구도 그 방을 가득 채운 고요와 평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아렌다 형제는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라

고 하면서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 느낌이 너무도 강하고 훌륭하여,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군요.”

며칠이 지난 후 다시 방문했을 때, 아렌다 가족은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다.

3주 후에 나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스페인 라코루냐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구세주에 대해 늘어난 지식과, 우리가 참으로 원한다면 주님께 드리는 봉사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확신이 었다.

프란시스코 크리스티나 빌라 레이는 스페인 마드리드 이스트 스테이크, 마드리드 제4 와드의 회원이다.

“왜 당신은 그토록 다르죠?”

후아나 리베로 드 곤잘레스

전 어렸을 때 개종했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치며 교회의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고, 그러한 부름을 받아 봉사하는 가운데 받은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체험한 여러 경험 가운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선교 사업을 하러 가기 바로 전 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1976년 1월에 선교사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졌던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멕시코 몬트레이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장

을 받았습니다.

스테이크장이 곧 해임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분은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일주일 전에 저를 성별해 주셨습니다. 그 분은 제가 성별된 후에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지 주의 사향을 알려 주셨으나, 제가 계획한 대로 일주일 더 직장에 나가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선교 사업을 위해 좀더 돈을 벌고 가족을 돕기 위해 가능한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성별받은 일요일 저녁에 스테이크장의 집을 나설 때 저는 온 몸에 아름다운 온기가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상시처럼 일어나 일하러 갔습니다. 사무실 건물에 들어서며 엘리베이터 안내원에게 인사를 하고 제가 가려는 층수를 말했습니다. 안내원이 대답 대신 저를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회사 소유주들이 엘리베이터에 탔으며 우리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후에, 저는 그들도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부서에 들어섰을 때, 동료들은 이야기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날 상사들이 집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제게 그 자리에서 대신 일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회사 소유주들이 엘리베이터에 탄 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제가 그토록 다르게 보이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종교와 선교 사업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축하해 주면서 제 사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일년 반 동안 휴가를 주어 제가 직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선교 사업을 마치는 즉시 다시 일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마지막 날,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그들의 표준이 제 표준과는 많이 다르지만 제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곁에서 일하던 마리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왜 당신은 그토록 다르죠?” 그녀는 제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새로운 관점에서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성신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기 전에 준비할 수 있었던 그 한 주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또한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비친 내 부름의 중요성을 내게 알려 줌으로써 복음에 대한 내 간증을 강화시켰습니다.

후아나 리베로 드 곤잘레스는 멕시코 멕시코 시티 아볼릴로 스테이크, 후아레스 와드의 회원이다.

이름표를 바꿈

알프리 리카르도 가리도

열다섯 살 때 나는 처음으로 전임 선교사를 만났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비록 첫번째 선교사 토론 중에 그들이 한 말은 별로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좋은 느낌은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전에 다니던 교회의 지역 청소년 그룹의 회장이었으며, 종교를 바꾸는 것에 흥미가 없었다. 사실 형과 누나가 침례 받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비록 그들이 하는 일에 동의하진 않았지만, 그들을 돕기 위해 침례식에 갔다. 나로서는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그 침례식에서 다시 좋은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선교사들과 더욱 더 좋은 친구가 되었다. 마침내 나는 다니던 교회의 청소년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침례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안 섰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 한 사람이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과 함께 집에 찾아왔다. 그 장로는 그날 밤 자신의 동반자가 된 사람은 스테이크 선교사라고 설명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장로님, 저도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는 이렇게 응답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교사가 되려면 교회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며칠 후에 나는 장로들이 두고 간 소책자를 집어 들었다. 그것들을 차례로 읽으면서 소책자에 나오는 참조 성경과 물문경에서 찾아보았다. 그런 후, 모로나이의 약속을 실천에 옮겨서 물문경이 참된지 알고자 기도를 했다. 영이 내게 참으로 그렇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다. 선교사를 만난 지 6개월 만에 나는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은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선교사들에게 이제 함께 일할 수 있는냐고 묻은 것이었다. “아론 신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고 그들이 응답했다.

2주 후에 나는 아론 신권을 받았다. 바로 그날 나는 장로들과 함께 나갔다. 그들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나도 언젠가 전임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 후 수년간 나는 말일성도 청소년이 갖는 모든 축복을 누렸다. 세미나리와 청년 모임에 참석하고,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했으며, 마침내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 애석하게도, 어머니는 내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꾸짖으며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반대했다. 열아홉 살이 되어 선교사 지원서를 작성하려는 데, 어머니가 내게 그만두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을 존중하여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

그 후 4년간 나는 스테이크 서기로 봉사하며,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의무를 수행했다. 때로는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일했다. 심지어 전임 선교사들과 같은 이름표를 달고 다녔다. 차이점은 내 이름 밑에 스테이크 선교사라는 말이 새겨진 것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그 이름표를 전임 선교사임을 알려 주는 다른 이름표와 바꾸어 다는 꿈을 꿴다.

그 무렵 나는 세미나리를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았다. 비록 내가 전임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이 기회는 스테이크 부름과 함께 적어도 내가 주님께 봉사하고 있다고 느낄 만큼 나를 바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예쁜 두 딸을 데리고 놀러 왔다. 스물 네 번째 생일을 맞

기 한 달 전이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조카 한 명이 내 품에 안겨 잠들었다. 그 애가 잠자는 것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아이들을 갖게 되면 그 아이들이 내게 “아빠, 선교사업은 왜 하지 않으셨어요?”라고 물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어머니가 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별거하고 계셨으며,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 남아 있던 유일한 자녀였다. 하지만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서류를 작성하여 보냈다. 온두라스 코마야구 엘라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이 왔을 때, 어머니는 매우 기분이 상해 몸져 누우셨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어머니는 내 결정을 받아들여주시고는 내가 떠날 준비를 하도록 도와 주셨다.

선교사 훈련원으로 떠날 날, 나는 어머니에게 신권 축복을 했다. 봉사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냐”(교리와 성약 82:10) 내가 것처럼 오랫동안 꾸어 왔던 꿈, 곧 주님과 그분의 교회의 전임 대표자로서의 부름이 마침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선교사로 봉사한 지 일년이 되었을 무렵 어머니께서 진리를 받

아들이고 침례를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기쁨은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내가 신앙의 도약을 하여 마침내 하나의 이름표에서 다른 이름표로 바꿀 수 있었던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윌프리 리카르도 가리도는 엘살바도르 아티퀴자야 스테이크, 아티퀴자야 와드의 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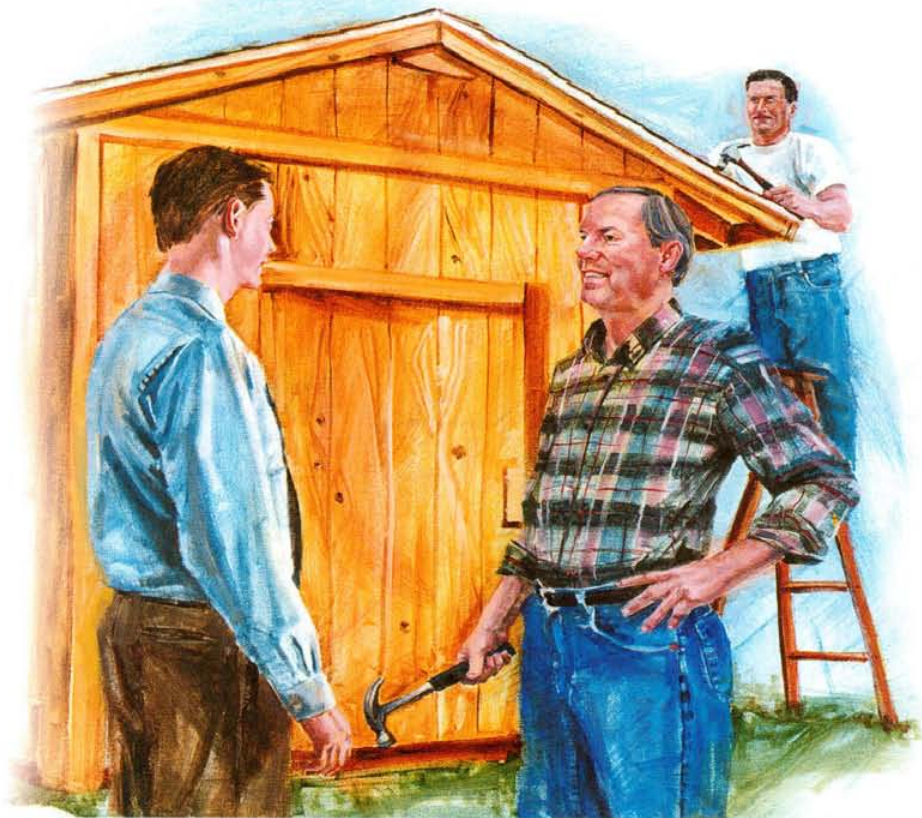
임무를 포기하지 않은 가정 복음 교사

데이비드 헤드

아 내 엔티아와 내가 교회에 들어온 지 일년이 되던 1965년에 우리는 어린 두 딸과 함께 영국 런던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당시 영국에는 스테이크가 오직 하나 뿐이었다. 신권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얼마 되지 않아 다니던 지부에서 25km 떨어진 마을에서 지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나는 이 새로운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마침내 지방부장단에서 봉사하다가 우리 지부가 와드가 된 후에 감독단에서 봉사했다.

우리 가족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나는 내가 맡은 판매 관리 직책으로 인해 더욱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으며, 일주일에 두세 번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나는 또한 다른 신앙을 가진 몇몇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교회 교리의 일부분에 대해 의심을 갖



집에 돌아 왔을 때 나는 가정 복음 교사들이 이미 그 헛간을 조립해 놓은 것을 보았다.

게 되었다.

나는 이치적인 이 새로운 친구들과 토론하는 일을 즐겼다. 그들은 경전을 사용하여 우리 교회가 아담 시대로부터 계명으로 주어진 몇몇 기본 개념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나는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교리에 대한 작은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내 나는 십일조를 내지 않았으며 성전에 가는 일을 중단했다. 내가 교회에 가는 일을 그만두자 아내가 항의를 했으며, 가정의 밤을 중단하자 딸들이 항의했다.

이 시기 동안에 교회에서 두 사람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일요일 가정 복음 교사들이 때로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교회에 가자고 권유했다. 그들은 매달 적어도 한두 차례 우리 집을 방문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면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조립식 정원 헛간을 주문했을 때의 일이다. 내가 출장간 사이에 조립되지 않은 채로 그것이 배달되었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가정 복음 교사들이 이미 그 헛간을 조립해 놓은 것을 보았다.

나는 특히 선임 가정 복음 교사였던, 아일랜드계 캐나다인인 데스 골만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참으로 사람을 잘 돌보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에게 교회를 대표했으며, 비록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았지만 나는 교회가 훌륭한 조직임에 틀림없다고 느꼈다.

마침내 우리는 사내 아이를 갖게 되었다. 가정 복음 교사들은 나에게 금식 간증 모임에서 유아 축복을 하는 것이 신권 행사의 하나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축복하는 일에 결국 동의하기는 했지만, 나는 참석하고 싶지는 않았다.

골만 형제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 아들

로난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해주었다. 그 축복을 들으면서 나는 영의 강력한 증거를 받았다. 내가 교만했던 것이다. 나는 몇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다. 회복된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을 거의 잃어버렸다. 내게는 여전히 가족이 있지만, 복음이 가져오는 감미로운 평안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다. 내 아내와 골만 형제 그리고 감독단이 회개하는 나를 지지해 주는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부터 나는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했다. 가정 복음 교사들이 계속해서 나를 격려해 주었다. 축복을 받았던 우리 아기는 귀환 선교사로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현재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나는 내 아들의 삶이, 그에게 이름을 주고 축복을 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찬사라고 느낀다.

나는 자신의 부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두 헌신적인 가정 복음 교사에게 언제나 감사할 것이다. 비록 골만 형제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나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애썼던 그 형제와 그의 지속적인 인내심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내 자신의 가정 복음 교육과 다른 교회 부름을 수행하면서 그의 조용하고 사랑에 넘치는 불굴의 모습을 본받고자 한다. □

데이비드 헤드는 영국 쉐넬햄 스테이크, 워체스터 와드의 회원이다.

학생들이 행동하게 함

공과 참여를 높이는 방법

반원들이 참여할 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한 스테이크 지도자가 워드 대회에서 장로 정원희 공과를 가르쳤다. 공과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은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정원희 회원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일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조바심을 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폐회 기도 후에 교사는 자신의 공과에 대해 생각하면서, 반원들을 참여시키는 대신 긴 설교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희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최근에 교회 회원들이 복음 교수법을 향상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우리의 예언자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음으로써 더욱 큰 신앙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이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 더욱 우수한 교수법을 소생시키고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하나님께서 오신 선생”, 성도의 벗, 1998년 7월

존 디 클레이보와
앤버 발로우 달

호, 25쪽)

효과적인 복음 교수법은 무엇인가?

복음 교사의 역할은 “각 사람이 복음을 공부하기 위한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도움, 공부할 소망을 갖도록 그들을 일깨움, 복음대로 생활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교사, 가장 중요한 부류, 61쪽) 주는 것이다.

“배움은 학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행동해야 할 사람은 바로 학생입니다.”(Asahel D. Woodruff, *Teaching the Gospel* [1962], 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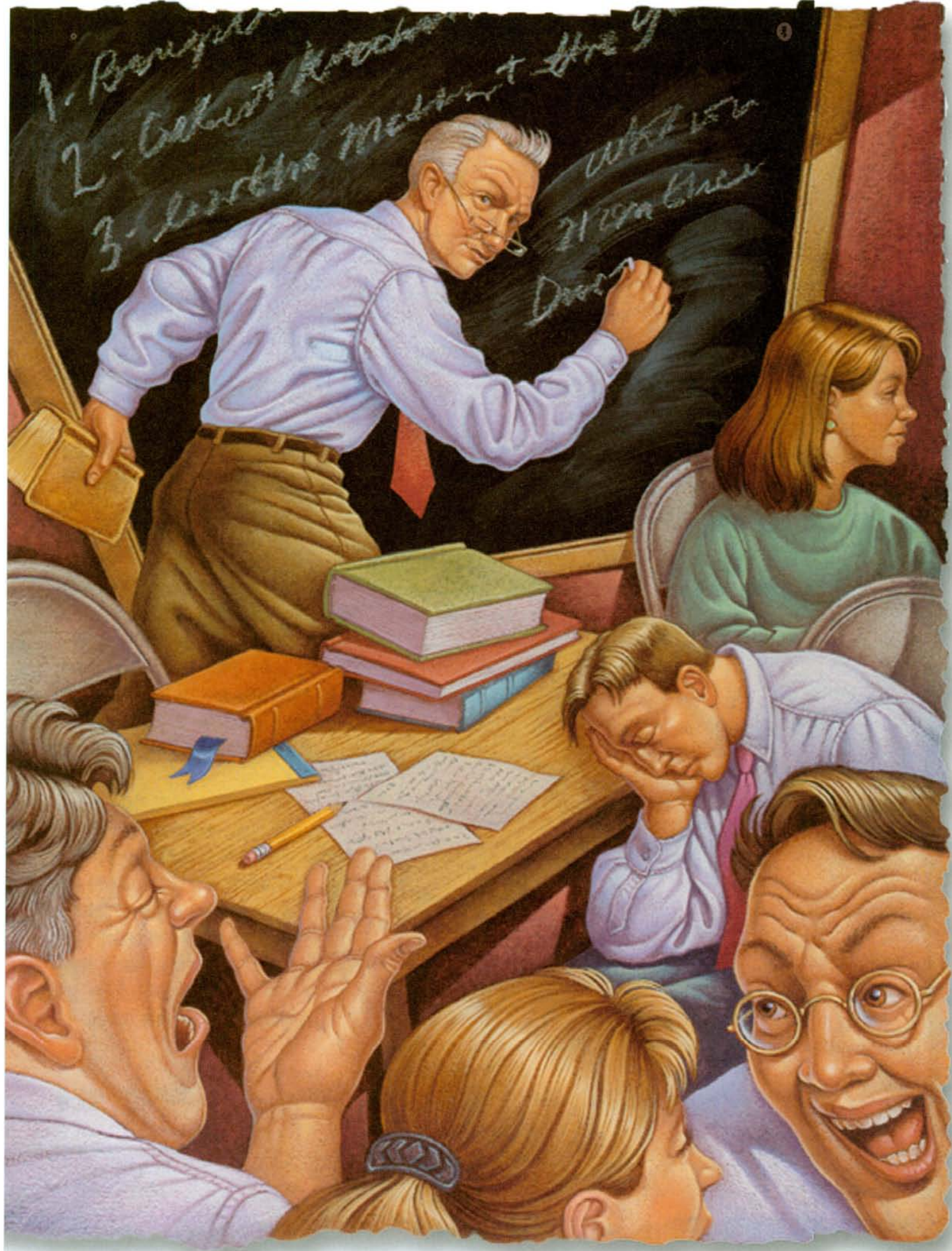
가정이나 교회 공과반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식과 성장을 “쏟아 부으려” 한다면 효과가 떨어진다. 성찬식이나 대회, 기타 공식 석상에서 연사들은 대체로 참여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실에서는 예언자의 학교를 위한 주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예를 따를 수 있다. “너희 중에 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입을 열지 않게 하라.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게 하여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말을 듣게 하라. 이는 모든 사람이 말하므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교화를 받아 사 람들이 저마다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8:122)

그렇다면 학생들이 복음 공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1. 말을 적게 한다

공과 시간의 90% 이상을 말하는 교사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은 교사로서 설명이나 가르침, 보기, 이야기, 간증 등을 전할 필요가 있지만, 말하는 것은 참여를 촉진시키는 계획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공과가 되려



다루어진 자료의
양은 반원 개개인이
영의 영향을
느끼도록 돕는 것
만큼 중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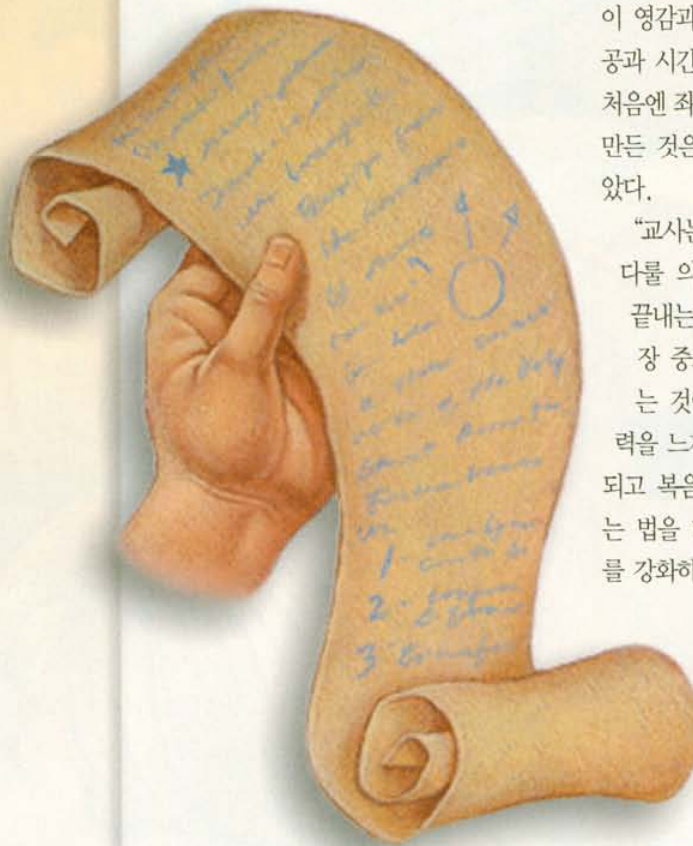
면 학생들이 그 시간의 40 내지 60% 동안 말을 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러한 시도를 통해 단순한 강사나 정보의 전달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 대신 여러분은 학생들이 경전에서, 다른 학생들에게서, 영으로부터 배우도록 돕는 촉진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여러분은 공과를 소개하

고 기초를 놓으며, 공과가 끝날 무렵 가르쳐진 교리를 명확히 하고 요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주일학교 교사가 교리와 성약 135~137편에 관한 공과를 준비했다. 그러나 공과 중에 학생들은 135편에 나오는 원리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많은 반원이 영감과 경험과 간증을 나누는 가운데, 공과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 교사는 처음엔 좌절했지만, 그 공과를 성공적으로 만든 것은 학생들의 참여라는 것을 깨달았다.

“교사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전부 다 다룰 의도로 훌륭한 토론을 너무 일찍 끝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룰 자료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원들이 영의 영향력을 느끼며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되고 복음 원리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며 복음대로 살겠다는 결의를 강화하는 데 있다.”(복음 교육 및 지도력, 298쪽)

2. 효과적인 질문을 한다





성장으로 이어지는 참여

반원들이 경전 독서 과제를 읽고, 공과 반에 경전을 가져오고, 복음이 자신들의 생활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더 많은 토론을 할수록, 그들이 개인의 영려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느끼는 영감과 성장과 기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인회("Teaching by the Spirit", *Ensign*, 1989년 1월호, 15쪽) □

수업을 시작할 때 반원에게 경전 구절이나 공과 자료에 나오는 인용문을 읽게 한다. 그런 후 의미 있는 대답을 이끌어 낼 질문들을 한다. "예" 또는 "아니오"라는 대답 만을 이끌어 낼 질문이나 대부분의 반원이 그 답을 알고 있는 질문,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추측하게 하는 질문 등은 참여나 의미 있는 대답을 촉진하지 않는다. 그러한 질문 대신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 이러한 구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이러한 구절에서 여러분은 어떤 복음 원리를 발견하는가?
- _____는 여러분이 ... 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 이러한 구절에서 무엇이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하겠는가? 그 이유는?

- 여러분의 말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 이것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 이것에 대해 어떤 견해나 느낌을 갖고 있는가?

■ 이 원리에 대한 간증이나 경험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없는가?

■ 니파이일서 16장을 가르칠 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질문의 예이다.

■ 니파이가 활을 부러뜨렸을 때 리하이 의 가족 각 사람은 어떻게 느꼈는가?

■ 어떤 구절이 니파이의 감정을 나타내는가?

■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 도전이나 역경에 대해 말할 사람은 없는가?

■ 이 장에서 어떤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가?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질문 또는 참여하라는 권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 대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여 반원들이 침묵을 불안하게 여기지 않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할 준비가

효과적인 복음 교사는
겸손하고, 기꺼이 주목
받는 일을 포기하며,
반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

되었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여러분이 침묵에 대해 편안하게 느낀다면, 반원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교사는 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말하지 않을 경우 그렇게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험들은 나누기에 너무 두려운 것들도 있다.

3.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여러분이 진지한 모든 의견에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는 경우, 여러분은 반원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더욱 더 자신감을 느끼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4쪽)
교사는 어떠한 질문이나 의견, 느낌, 경험, 간증 등을 비웃거나 비평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예의와 사랑을 보여야 하며, 유익한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때로는 친절하게 교리상의 오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기여가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며 자신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다. 개인적인 영감을 나눌 때 학생들은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위협을 감수한다는 것을 명심한다. 만일 학생들이 긍정

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 의견 나누기를 망설일 것이다.

학생들의 의견이 여러분이 의도한 방향과는 다르게 흐른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도록 한다. 의견이 공과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의견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새로운 화제를 소개하고, 또다시 참여하게 한다. 반원들의 의견에 반응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그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 느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과 같은 말로 더 많은 참여를 권고할 수 있다.
- 좋은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까?
- 반원이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것을 말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원리는 ...



당혹케 하거나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가르치는 기쁨

효과적인 복음 교사는 겸손하고, 기꺼이 주목 받는 일을 포기하며, 반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했던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숙련된 교사는 반원이 교사가 얼마나 훌륭하고 특별한 한가를 이야기하며 교실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학생들이 복음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떠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교실-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훌륭한 장소”,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12~13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장엄하며, 우리는 모든 반원의 지식과 느낌, 아이디어, 경험, 간증 등을 활용함으로써 그 장엄함이 환히 빛나도록 노력할 수 있다. 효과적인 복음 가르침을 통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교회를” 받게 할 수 있다. □

존 디 클레이바우는 코스타리카 산호세 선교 부장이다. 엠버 발로우 달은 아이다호 이글 스테이크, 센테니얼 워드 회원이다.

■ 저도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

언제나 기꺼이 질문에 대답하거나 의견을 발표하는 반원이 한두 명 있을 것이다. 기꺼이 참여하는 그들에게 감사함을 나타낸다. 하지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1907~1995)은 이렇게 조언했다. “우리 중에 몇몇 사람이 언제나 명석하고 적극적이며 올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져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답하기를 망설이는 사람이 없는지, 부끄러워 하거나 소극적이거나 혹은 영적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Eternal Investments* [address to Church Educational System instructors, 1989년 2월 10일], 4쪽) 그러나 교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대답하고 싶어하지 않는 학생을 억지로 참여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려 하면서도 반원들을



단지 공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십시오

복 음 교사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름을 단순히 가르치거나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름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반원의 관점이 아닌 교사의 관점에 의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복음 교육”,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96쪽) □



복음 교육에 대해 말씀하는 말일의 예언자들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제9대 대관장**

“만일 지도자나 교사가 회원들의 사랑을 단지 자신의 성품으로 향하게 한다면 그 지도자나 교사는 임명된 일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지도자나 교사를 사랑하기 보다는,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지도자나 교사의 의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내세우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지도자와 교사들도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진리를 내세우기 위해 자신을 감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빵이나 진리를 구했을 때, 그분은 결코 그들에게 돌을 주어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진실 진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이해하셨습니다. 진리는 그분의 실체에서 빛났습니다. 그분은 실례와 주변의 자연물 등을 활용하여 그 진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방법을 이해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주제로 가득했으며 그런 후에 그 주제를 듣는 사람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동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이 하

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람 됨됨이인 것입니다. 미국인 가운데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내 귀에 너무 크게 울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가 없다.”(Conference Report, 1968년 10월, 143~144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1895~1985),
제12대 대관장**

“오클라호마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가다 오후의 태양이 구름 뒤로 숨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색의 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험악해졌습니다. 우리는 ‘곧 태풍이 불어올 것 같군.’ 하고 말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바람이 윙윙거리며 불기 시작하자, ‘이 태풍은 맹렬하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태풍이 지옥 같은 기세로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 비바람이 분노의 회오리 바람이 되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험악한 시기입니다. 늘어나는 폭력이 신문 일면 머리 기사를 장식하고 있으며, 잡지는 늘어나는 위험을 다루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



“그러한 흐름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풍조를 바꾸고 혼돈 속에서 고상함과 질서를 되찾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긍정적이고 우렁찬 ‘예’입니다. 하지만 결심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

“가정 생활, 가정 교육, 부모의 인도는 모든 질환의 만병 통치약이며, 모든 병의 치유책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 여러분, 모든 종교에 속한 종교인 여러분, 모든 국가의 국민 여러분, 이 보편적인 만병 통치약을 쥐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악에 대한 면역성을 주도록 합시다. 시온이나 모든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회교도에 속한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하여 모든 부모들은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올바르게 견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65년 4월, 60~65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1907~1995),

제14대 대관장

“잠시 시간을 빌어 내가 소년 시절에 체험했던 인상적인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느 여름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침 나는 창가에서 있었습니다. 나는 커튼이 열린 틈으로 잔디밭에 내려앉은 새 두 마리를 보았습니다. 한 마리는 좀 큰 새였고 다른 한 마리는 방금 새 둥지에서 나온 것 같은 작은 새였습니다. 나는 큰 새가 잔디밭 위를 쾅쾅쾅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는 잔디밭에 머리를 깊숙이 박았습니

다. 그러더니 커다란 벌레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똑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새는 작은 입을 있는 대로 벌렸습니다. 그 큰 새는 한번에 잡은 벌레를 삼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큰 새가 나뭇가지 위로 날아가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미 새는 잠시 동안 나무 껍질을 쪼아 대터니 입에 커다란 곤충을 한 마리 잡아 갖고 나타났습니다. 작은 새는 다시 부리를 벌리고 기다렸지만 큰 새는 그 곤충을 한 입에 삼켜 버렸습니다. 한 동안 작은 새의 불평의 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새는 어디론가 날아가 다시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새를 주시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작은 새는 잔디위를 돌아다니며 발로 헤치더니 큰 벌레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맡아 가르치시는 선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빌겠습니다.”(“선생님”, 성도의 빛, 1973년 2월호, 17쪽)



고든 비 힝클리 (1910~), 제15대 대관장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교사들, 선교사들과 가정들께 간청드립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영을 먹고 영혼을 살찌우기 바랍니다. ...

“저는 세상이 영적인 양식에 굶주려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고대의 아모스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아모스 8:11~13)

“진실로 이 세상에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요, 영적인 것에 대한 결핍을 말합니다. 저는 세상이 영의 양식에 굶주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기회입니다.”(Conference Report, 1967년 10월, 89~90쪽) □



알고 계십니까?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일을 잘 하라.”

1898년, 훗날 제9대 대관장이 된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는 스코틀랜드에서 봉사하며 고향을 그리

워하는 선교사였다. 그는 스티어링 시에 머문 지 몇 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낙담해 있었다. 그와 동반자는 어느 날 아침 스티어링 성 주변을 걷고 있었다. 시내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한 건물을 보았다. 맥케이 대관장은 후에 이렇게 설명했다. “정문 위에 석상 아치가 있었는데, 주택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아치에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동반자에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봐야겠습니

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 메시지는 단지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섬기는 그분에게서 온 듯 했습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일을 잘 하라.’”(Conference Report, 1956년 10월, 91쪽)

그날 아침 그 젊은 장로가 받은 메시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로서 자신의 일을 잘 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맥케이 대관장이 일생 동안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실천하고 가르친 메시지가기도 하다.



9월에 일어난 일

다음은 교회사에서 9월에 일어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다.

1823년 9월 21~22일: 모로나이 천사가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후에 요셉이 물문경으로 번역할 고대 기록의 존재를 가르쳤다.

1827년 9월 22일: 요셉 스미스는 뉴욕 주, 팔마이라에 있던 요셉의 집 근처 구모라 언덕에서 모로나이 천사로부터 금판을 받았다.

1850년 9월 9일: 미국 의회가 유타 준주를 조직했다. 9월 20일에 브리감 영이 준주의 주지사로 임명되었다.

1898년 9월 2일: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91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같은 해 9월 13일에 로렌조 스노우가 제5대 대관장이 되었다.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때때로 지도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자신들을 다른 사람, 심지어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 장로는 우리 자신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일깨워 주었다. 주님은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워스린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염려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감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한 발 한 발”, 리아호나, 2002년 1월 호, 29쪽) □

리아호나

2002년 9월호

활용하기

토론 제언

■ “인내, 천국의 미덕”, 2쪽: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었던 독일 민주 공화국의 성도들에 대해 말씀했다. 주님께서서는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여러분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어떤 약속들을 주셨는가? 어떻게 하면 독일의 성도들과 같은 인내와 신앙을 키울 수 있는가?

■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0쪽: 제프리 알 홀린드 장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영양분과 힘의 확실한 근원을 취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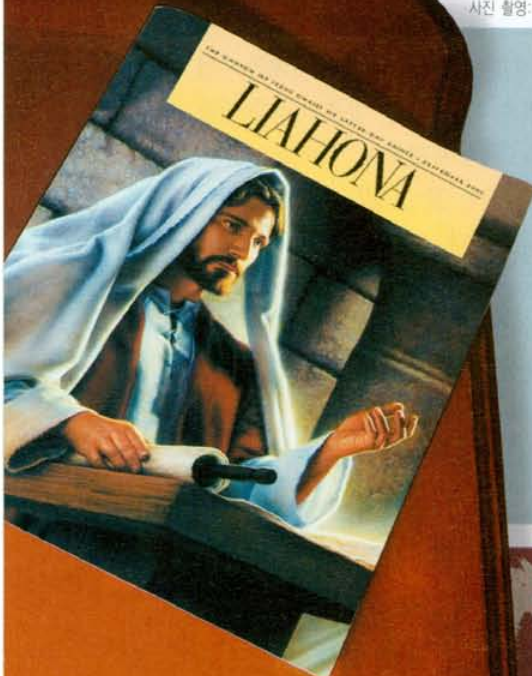
■ “나의 친구이자 동역자: 루안 펠릭스 다 실바의 모범”, 14쪽: 자신의 근심에 얽매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못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에 집중하는 일에서 조금 더 루안 펠릭스 다 실바와 같이 될 수 있는가?

■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심”, 친구들 2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할아버지는 농장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십일조로 내셨다. 오늘날에는 비록 십일조를 돈으로 내지만,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이번 호의 주제들

- 친=친구들
- 가르침25, 38, 44, 48
- 가정 복음 교육.....8, 32
- 가정의 밤.....48
- 감사.....16
- 개종.....26, 32, 친8, 친10
- 겸손.....16
- 경전 공부.....9, 26
- 교육.....16, 25
- 교회사.....47
- 구약 성서.....9
- 기도.....9, 16, 26
- 기적.....친14
- 단합.....친10
- 모범.....14, 친4
- 방문 교육.....25
- 봉사.....2, 14, 32
- 사랑.....10
- 선교 사업.....26, 32, 친4, 친6, 친8
- 성전 및 성전 사업.....14, 친4
- 순종.....친10
- 신권 축복.....22
- 신앙.....32, 친10
- 신약 성서 이야기.....친12, 친14
- 십일조.....친2
- 역경.....2, 10, 22
- 예수 그리스도.....2, 10, 32, 친2, 친12, 친14
- 예언자.....16, 44
- 인내.....2
- 지도력.....26, 47, 48
- 지지.....10
- 지혜의 말씀.....16
- 진리.....16
- 초등학교.....친4
- 표준.....16
- 활동 촉진.....친32
- 희생.....친12

사진 촬영: 켈리 라슨



여러분의 가장 성공적인 가정의 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정의 밤에서 무엇을 했으며, 무엇이 효과적인 가정의 밤이 되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의 밤 경험에 관한 아이디어나 이야기, 기사 등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전자 우편 주소: cur-liahona-imag@ldschurch.org.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스테이크 및 와드(또는 지방부 및 지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그림 : 프랭크 아담스, **여리고의 함락**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 6:20)



“회원들에게 지도자나 교사를 사랑하기 보다는, 복음 진리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지도자나 교사의 의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내세우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지도자와 교사들도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진리를 내세우기 위해 자신을 감추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복음 교육에 대해 말씀하는 말일의 예언자들” 45쪽 참조

